

신시까지 30년차

포남동



신시가지 30년차. 포남동

발행일. 2020. 12
발행처.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발행인. 김남옥
제작기획. 스콘
출판편집. 참깨
표지사진. 심규동

목차

'하평길 사람들'을 만나며 도시재생의 조건을 생각합니다. 6

편리함을 버리면 행복해질 마을이야기 10

포남동 새벽시장 14

왜, 포남동에서 놀이터 사진을 찍었을까? 18

아빠와 포남동 그 사이 어딘가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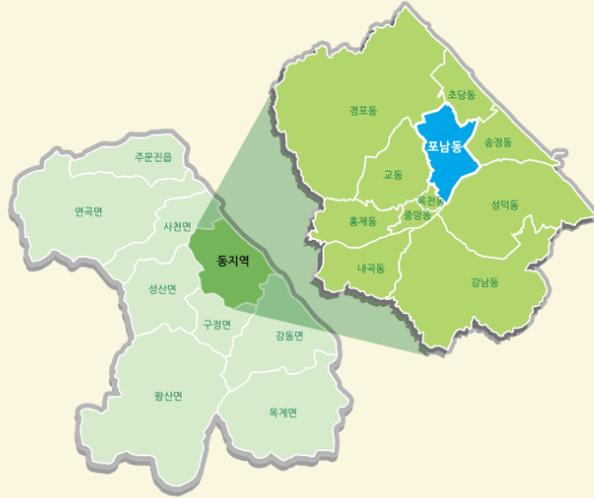
'내일을 위한 모두의 선택' 내일상회 24

포남동 자전거 여행 38

포남동

개요

개설 시기/일시	1914년
성격	법정동
면적	3.86km ²
인구	23,563명 (2020년 9월 기준)
	남자 11,607명 / 여자 11,956명
가구 수	11,727가구(2020년 9월 기준)



정의

강원도 강릉시 경포호 남쪽에 있는 법정동.

개설

강릉시를 구성하고 있는 21개의 행정읍·면·동 중 일부이며, 62개 통 319개 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명칭유래

경포 남쪽에 있는 마을이란 뜻에서 ‘포남(浦南)’이라고 하나, 포남동의 옛 이름이 보람이로 ‘포남’은 ‘보람이’를 한자화한 음이다.

형성 및 변천

포남동은 원래 강릉군 북일리면 지역으로 1914년에 운곡리(雲谷里), 대창리(大昌里)와 남일리면의 수문리(水門里) 일부를 합하여 군내면에 편입하였다가, 1955년 9월 1일에 강릉시로 될 때 리(里)가 동(洞)으로 되었다. 분동 이전 면적이 3.4km²이다.

1955년 9월 1일 강릉시가 될 때 옥포동에 편입되었다. 1965년 4월 옥포동에서 옥천동과 포남동으로 분리되었다. 이후 다시 포남동은 1995년 3월 2일 포남 1동과 포남 2동으로 분동되었다.

포남동 일대는 1970년대 이후부터 1986년까지 103.8만m² 면적에 구획 정리 사업이 이루어졌다. 한적한 농촌이었던 포남동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신설 도로 또는 주거용 건물이 들어서면서 인구와 주택 수도 급증하였다.

자연환경

포남1동은 대부분이 평지이다. 남쪽으로는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남대천이 있어 북쪽보다 남쪽이 낮고 서쪽보다 동쪽이 낮아 일시적으로 강수량이 많으면 남동 지역이 침수될 가능성이 큰 환경을 지니고 있다. 반면 포남2동은 서북쪽 대관령에서 뻗어 내려오는 산줄기가 화부산으로 이어져 포남2동에 이르러서는 낮은 산등성이를 이루고 있다. 산등성이 소나무 숲의 모습이 아름다운 편이며, 산을 끼고 평지에 주거지가 형성되면서 숲이 산책 코스로 이용되고 있다. 멀리 남쪽으로 송정 평야가 보이고 송정 평야 뒤로 동해 바다가 펼쳐진다.

포남동은 강릉시의 도시화 과정에서 대규모 주택 단지가 조성되고 단독 및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건설되면서 1980~1990년대에 신시가지로 변화하였다. 눈이나 낮은 구릉지였던 포남동이 시가지화된 것은 도심에서 비교적 가깝고, 주택 단지 건설에 양호한 지형적 조건과 경포호를 연결하는 중간 지역에 있었기 때문이다.

위치와 교통

강릉시의 중동부에 위치하여 동쪽으로는 송정동, 서쪽은 옥천동, 남쪽은 성덕동, 남대천, 북쪽은 교 2동과 접해 있다. 구획정리 지역으로서 도로망은 양호한 편이며 대중교통도 편리한 상태이다.

현황

강릉시 동부 지역의 중간에 있는 법정동으로 면적이 3.86km²이며, 62개 통, 319개 반에 공무원은 포남1동에 13명, 포남2동에 15명

으로 총 28명이다. 2020년 9월 기준 11,727세대에 23,563명(남자 11,607명, 여자 11,956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주요 기관으로 한솔초등학교, 포남초등학교, 하슬라중학교, 동명중학교, 경포고등학교, 강릉문화방송, 영동방송, 의료법인 동인병원, 한국전력공사 강릉지사, KT 강릉지사가 등이 들어서 있어 도시의 모습과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다.

주요 문화재로는 강원도 기념물 제3호로 지정된 용지(龍池)와 환선정이 있다. 환선정은 경포팔경 중 '환선 요월(喚仙邀月)' 또는 '환선 취적(喚仙吹笛)'에 언급되는 유서 깊은 누정이다. 16세기 후반 경포호의 남쪽 산기슭에 지어져 정면으로 경포호와 경포대가 보였던 환선정은 그 터만 전해졌다. 강릉시는 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들여 포남동 산45번지 모안이골 부지 450m²에 건축 면적 28.98m²로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누마루 형태의 누정인 환선정을 재건립했다. 환선정은 2015년 12월 준공되어 2016년 5월 현판식을 했다.

포남동의 자연 부락

포남동에 있는 자연 부락은 산양동, 남구, 울길, 모안이골 등이 있다.

산양동은 동명 중학교와 경포 고등학교 사이에 있는 긴 골로, 골 전체가 남향이어서 햇볕이 잘 든다. 이 지역은 사랑골이라고도 하는데 옛날 이곳에 사랑 벼슬을 한 객 씨가 살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남구는 현 포남동 농수산물 시장 일대로, 보남이를 중심으로 남쪽 구릉 지역이다.

울길[雲谷]은 경포 고등학교 일대로, 중국의 유학자 주자(朱子)의 고향인 자양 운곡(紫陽雲谷)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보람이는 산양동 앞에 있는 마을로, '보다[見]와 '남쪽'이라는 말이 합쳐져 '남쪽을 바라다보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지어진 이름이다.

모안이골은 강릉 종합 경기장에서 북쪽으로 떨어진 골에 있는 마을로, 경포호 남동쪽이다. 옛날 이곳에 있던 환선정(喚仙亭) 밑으로 못이 있어 '못(淵)+안(內)+이'라고 하였는데, 즉 못 안에 있는 굽이란 뜻이다.

포남동 구획정리사업

포남동 구획정리사업은 강릉시가 도시적인 토지이용을 더욱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남동 일대를 대상으로 구획정리와 택지조성을 벌인 사업이다.

1975년 영동고속국도가 개통된 후 강릉시는 도시를 정비하고 늘어날 택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농업용 토지이용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던 포남동 일대를 구획정리하고 택지를 조성코자 하였다.

1980년에 착공한 사업은 사업비 22억 원을 투입하여 73동의 가옥 철거와 131개의 전주를 옮긴 후, 5.9km의 도로축조, 4.8km의 하수도 시설, 290m의 도로포장을 함으로써 31만 평의 택지 및 구획정리로 1985년에 마무리하였다.

이로써 구도심지에 한정되어 있던 도시공간은 동쪽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지구 내에 많은 개인 주택들과 각급 학교 및 경찰서, 한국전력공사 등의 기관들이 건축되었다. 또한 시장과 주공 아파트가 들어섰으며 이어서 경포의 순환도로가 연결되고 송정과 안목으로 이어지는 도로망도 형성되었다. 이 지구의 점진적인 인구증가로 포남동은 나중에 포남1동과 포남2동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출처: 디지털강릉문화대전(<http://gangneung.grandculture.net>)

‘하평길 사람들’을 만나며 도시재생의 조건을 생각합니다.

글 박준상



멀리 보이는 새로운 도시에 환한 불이 켜진다. 밖으로 향하는 동안 구도심은 비어갔다. 안타깝게 새로운 땅도 얼마 안 남아 보인다. 인구 감소에 붙은 가속은 강하다. 외연 확장에 한계가 다다랐다.

숨 가쁘게 달리던 개발에 제동이 걸렸다. 도넛 모양으로 변한 도시는 경제, 정치,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논리에서 문제를 드러냈다. 수술대에 오른 도시가 재생이라는 처방을 받았다.

도시재생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이를 위해 쇠퇴 지역을 선정한다.

선정은 인구감소, 사업체 수 감소, 생활환경 악화와 관련된 5개의 법정지표를 기준으로 한다. 인구감소는 1.지난 30년간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20% 이상 감소와 2.지난 5년간 3년 연속 감소를, 사업체 수 감소는 1.지난 1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5%이상 감소와 2.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를, 생활환경 악화는 2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50%이상 되어야 함을 말한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7조).

숫자가 주는 힘은 강하다. 강한 힘을 중심으로 공감대라는 영역이 생긴다. 국가 정책 시행에 수치로 나타나는 지표가 필요한 이유다. 정책이 세워지면 많은 단체가 기준 충족을 위한 고민과 연구를 거듭하며 사업 선정을 이루어낸다.

강릉시 포남동에는 1970년대 말부터 90년대까지 활발하게 개발된 초기 택지 지역이 있다. 최신식 아파트에 모여든 인접 주민들의 호기심에 바빠 움직이는 엘리베이터는 놀이기구 부럽지 않았다. 새로운 도시를 쫓던 투기꾼들의 시선은 늘 포남동을 향해있었다. 학구열도 오르며 여러 방면에서 뜨거운 장소가 되었다.

2020년, 포남동 개발 지역이 약 40살의 나이가 되었다. 최근 조성한 택지와 비교하여 낡은 모습을 풍기지만 포남동이 가진 힘은 여전히 강하게 느껴진다. 동네에서 해결 가능한 행정 인프라와 생활 편의 시설은 주거지로서 매력적이다. 강릉 시내와 바다 사이에 위치한 입지 조건은 교통 중심지로 성장하는 바탕이 되었다. 그리고 40여년의 일상이 만들어 낸 흐름은 주민 간 연결로 이어지며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하평길 사람들’을 만났다. 아파트 상가 지하 너른 자리에 마련한 거점 공간에 들어선다. 아이 몇몇이 모여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모습이 보인다. 어른들도 다른 편에 앉아 의견을 나누는 중이다. 의자와 테이블이 자유롭게 놓여있는 모습이 함께 어우러지며 활발한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여유 공간 곳곳에 눈길을 멈추니 하평길 사람들이 그리는 세상이 묻어있다.

한솔초등학교 자모 모임인 ‘한솔아띠’가 시작이었다. 아이와 함께 살기 좋은 환경을 고민하니 마을이 보였다. 내 아이만 잘 키우자는 생각에서 벗어나 주변을 살폈다. 동네 놀이터에서 벼룩시장을 열어 이웃 사람들과 어우러지는 경험을 만들었다. 모여 앉아 책을 읽고 손뜨개를 같이 배우고 밥상을 나눴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다. 마을 공동체 사례를 학습하며 한솔아띠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그려나갔다.



문제를 인식하고 모이고 해결을 찾는 동안 공동체라는 울타리가 조금씩 지어졌다. 발걸음을 나누고 속도를 맞추다 보니 어느덧 많은 경험이 나누어지고 있었다. 비어있던 놀이터에 아이들이 모이고 낯익던 시설에 새로운 관심과 투자가 더해졌다. 강한 리더로 움직이는 사업이나 운동과는 다른 모습으로 마을이 진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공동체를 유지하던 환경에 변화가 일어났다. 아이들이 진학하며 한솔초등학교 자모 모임이라는 의미가 무색해졌다. 적응과 성장이 필요했다. 상상했던 세상을 다시 그리며 공동체의 중심축을 학교에서 마을로 옮겼다. 포남동 하평길을 중심으로 생활하거나 하평길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상상이 마을에 번지기를 바라는 사람들 ‘하평길 사람들’이다.



숫자 이야기로 돌아간다. 계획도시가 가진 여러 이점에 여전히 많은 사람이 드나들며 생명력을 얻는 강릉시 포남동이다. 생활환경 악화와 관련된 법정지표로만 바라보면 도시재생 대상 지역과 지극히 먼 거리에 있다. 그럼에도 도시재생 사업이 세운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 비전과 1.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2.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3.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4.지역 정체성 기반 문화 가치, 경관 회복 5.주민 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다섯 가지 목표를 살펴보면 하평길 사람들이 만드는 변화가 도시재생이 지향하는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느낀다.

국가사업 시행에 지표는 필수가 되었다.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 움직이는 도시재생 사업은 더욱 엄정한 기준이 필요하다. 경제위기와 인구감소, 최근에는 전염병까지 도래하며 응급실에서 재생이라는 처방을 기다리는 지역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이 수치로 전달된다. 이에 반해 아직도 많은 사람이 주거지로 선호하는 포남동에 도시재생 잣대를 들이대는 일이 무리수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포남동에서 활동하는 공동체를 통해 도시재생에 필요한 움직임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었다. 화려한 동작보다 뭉근한 번짐으로 뿌리 내리는 모습이 도시재생을 준비하는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장면이 기대된다. 나아가 도시재생 지역 선정을 위한 지표가 더 세밀하게 나뉘는 정책 변화도 그려본다. 2020년 11월에 만난 하평길 사람들의 활동이 지속해서 이어지기를 응원한다. 🟡

편리함을 버리면 행복해 질 마을이야기

글·사진 송성진



포남동을 찬찬히 걷다 보면 이분법적 마을을 걷고 있는 기분이 든다. 나의 공간과 모두의 공간, 사람의 공간과 자연의 공간. 뚜렷하게 경계를 짓고 있다. 1980년대 계획도시로 조성된 지역이라 어쩔 수 없으리라. 조성 당시 도로가 있어야 건축허가가 났다고 하니 이해가 되는 지점이다.

이처럼 1980년대는 열심히 공장을 짓고 아파트를 짓고 자동차와 비행기를 만들어 빨리 이동하며, 일회용품으로 편리와 안락을 좇던 시절이었다. 삶은 편리해지고 경제적으로는 부유해졌다. 반면 마을의 개념은 해체되고 매일 한 뼘씩 우리 아이들을 키워주던 골목길은 사라졌다. 골목길에 놓여있던 화분과 꽃들은 자취를 감추고 슬그머니 주차금지 팻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말았다.

물론 계획도시인지라 정방형의 도로를 중심으로 주택이 일렬로 나란히 줄지어져 있는 형태라 잘 정비된 느낌을 주긴 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골목이 없다. 모든 길은 차량을 우선인 도로로 형성되어 있다. 게다가 당시에는 개인 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이라 주차장 역시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연유로 차량 대부분이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어 도로가 좁아지고 보행자의 통행권을 보장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도로변에 주차공간이 있으면 대부분 주택이나 상가에서 세워놓은 주차금지 팻말을 어김없이 놓여있는 이유다, 이 또한 포남동이 가지고 있는 주차장 문화라고 할 수 있겠지만 주거환경 측면에서는 안타까운 것이 현실이다.

겨울공연 뒤편 연당길과 산양큰길 사이 주택가에 들어서면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다.

멋진 정원을 가진 고급스러운 주택들이다.

높다란 담장과 대문 위로 향나무, 소나무며 잘 가꾸어진 정원들은 발길을 붙잡기에 너무 좋은 요소들이다.

공동체라는 이름을 붙여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면 이보다 아름다운 그림은 없으리라.

담장을 헐고 정원을 주민 모두에게 내어준다면 꿈에 그리던 전원마을이 될 것 같다

주택가 사잇길은 차량이 다니지 않는 견고 싶은 거리가 될 것이고 주민들의 소통공간이 되리라

높은 담에 가려졌던 주민들의 얼굴이 보일 것이고 수고롭게 가꾸었던 각자의 정원이 보일 것이다.

다만 차량이 내 대문 앞까지 오지 못하니 불편은 할 것이다.

차가 있는 곳까지 걸어가야 할 것이고 대형가전이나 난방유를 공급해줄 주유소 차량도 진입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편리함을 마을에 내어준다면 행복한 마을이 될 것이다.



불편한데 행복하다니 말이 안 된다 할 것이나 몸은 좀 더 건강해질 것이고 마음은 한결 넓어지리라
 캘리포니아 주택단지엔 집 마당과 현관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것이 미국식 정원이다. 자연과 공동체의 경계인 담
 이 없는 것을 공동체의 미덕이라 여긴다. 개척 주의자들의 자연에 대한 보상의식 인지 자연과 인간의 영역에 선
 을 긋지 않으려 하지만 집집마다 잔디밭이 경계를 나타낸다. 반면 제주의 돌담은 자연과 인간의 경계선을 만든
 다기보다 자연과 인간의 중간영역을 쓰다듬는 하나의 선을 긋는다
 야생의 자연계와 인간계가 조화롭게 만나는 경계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중간적 공간이 필요한 것이 포남동이 아닐까 한다. ▲



포남동 새벽시장

글·사진 김나훔



나보다 1년 먼저 강릉으로 이사 온 우리 엄마는 포남동 남대천 근처의 한 아파트에 산다. 수십 년 주부 경력의 그녀는 늘 가격이나 품질에 대해서 간간히 비교하면서 장을 본다. 고기는 어디 마트가 좋고, 생선은 가격대비 어디가 좋고...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 표로 정리되어있는 게 아닌가 싶어진다. 그런 엄마가 어느 날 포남동 새벽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아침이면 정말 많은 사람이 공터에 나와서 각종 농수산물을 사고파는 풍경이 펼쳐진다는 것과 그 풍경의 활력이 엄청나서 꼭 뭘 사지 않더라도 가보면 참 재밌다는 것이다. 물론 다양한 품목과 품질, 가격으로 인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새벽시장의 장점이라고 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정한 시간 점포에서 영업하는 재래시장은 종종 가보았지만 넓은 공터에서 새벽, 아침에만 반짝 열리고 낮부터는 사라지는 장터가 존재

한다는 사실이 나로선 쉽게 상상이 되지 않았다. 누가 판매를 하는 건지?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또 농산물새벽시장의 그 '새벽'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말하는 건지?... 여러 물음표가 머릿속에 떠올라 직접 그곳에 가보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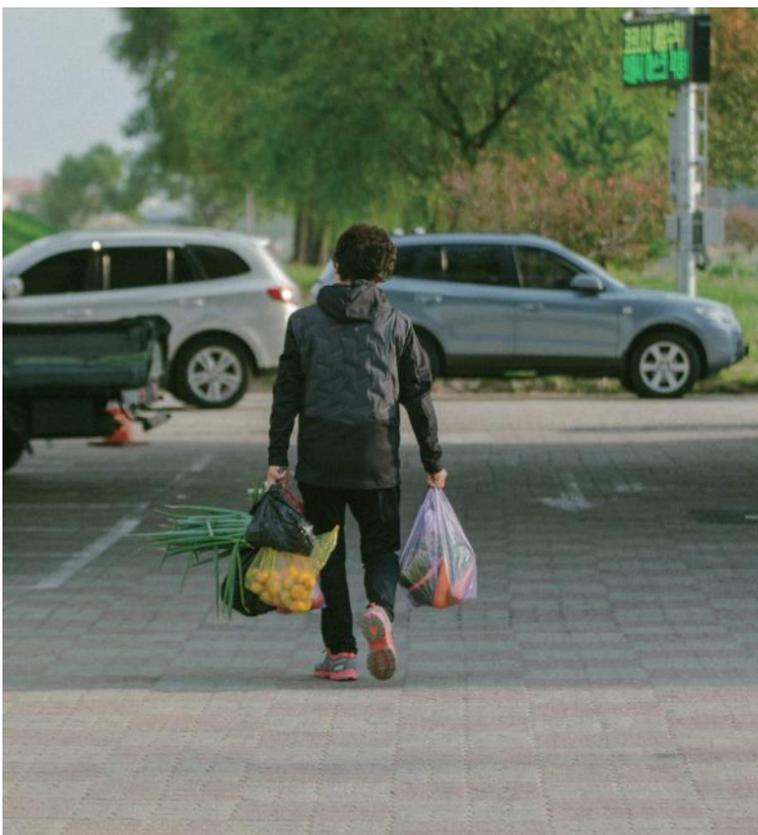
올빼미족까지는 아니어도 늘 자정이 넘어서야 잠자리에 드는 나는 새벽시장에 가기 전날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오전 6시 반에 일어나 준비를 하고 7시가 조금 넘은 시간 포남동 새벽시장에 도착했다. 일교차가 심한 가을 아침의 온도는 무척 쌀쌀했다. 인근 공터 주차장에 주차했는데 그 시간에 움직이는 차들 대부분이 이 새벽시장 주차장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집이 가까운 어르신들은 크고 작은 손수레나 장바구니를 끌고 시장을 드나들고 있었다. 일찍부터 이미 잔뜩 재료를 사서 집으로 돌아가는 어르신도 있었다.

먼저 멀리서 형형색색의 파라솔이 눈에 들어왔다. 시장 입구로 들어서자 신선한 야채들과 알록달록한 과일들이 손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제 막 자다 일어나 푸석한 상태의 나와 달리 그 안에서 분주하게 장사를 하는 상인들과 좋은 물건을 찾는 구매자들의 모습은 내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다양한 식재료 뿐만 아니라 소머리국밥, 백반, 잔치국수, 어묵탕, 커피, 미숫가루 등... 농민, 상인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먹거리들도 있었다. 시장 안에서도 어떤 작은 생태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내가 도착했을 때 국밥집은 이미 정리 중인 분위기였던 것으로 보아 얼마나 일찍부터 이 시장이 운영되는지를 미뤄볼 수 있었다.

근처 사무실 본부가 있어 들어가 봤지만 담당자분이 부재중이었던 터라 그 앞에 있는 상인분에게 궁금한 점들을 몇 가지 물어보았고 이 시장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새벽시장의 역사는 약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7년 강릉시에서는 시내의 다양한 노점상들을 정비하고 한곳에 모아서 장터를 여는 활동을 추진했다. 시청을 통해 신청을 받았고 심사를 거쳐 새벽시장에 물건을 내놓을 수 있는 판매자 자격을 주었다. 처음엔 농민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인들이 이곳에 모여들었는데 지속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 질서가 없어지고 난립이 심화되어 2014년부터는 신규 신청자를 오직 강릉시에 거주 중인 농업 판매인들만 받고 있다고 한다. 장터의 운영 시간은 오전 4시부터 9시까지이지만 일찍 와서 준비하거나 마무리를 천천히 하시는 분들 때문에 앞으로 1시간 뒤로 1시간인, 3시부터 10시까지는 활발한 시장의 분위기가 유지된다. 새벽 4시면 아직 캄캄할 시간인데 그때부터 새벽시장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인다고 하니... 보통 그 시간에 최고 깊은 잠에 들어있는 나로선 정말 알 수 없는 세계처럼 느껴졌다.

농민, 상인들은 지나가는 구매자들의 마음을 끌기 위해 큰 목소리로 ‘덤’, ‘하나 더’, ‘반값’ 등과 같은 솔깃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구수한 사투리로 호객행위를 한다. 얼핏 거친 상황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어딘지 마음이 푸근해지는 정감이 있다. 그저 구경만으로도 재미있어 시간을 한참 보내던 나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두부가게 앞에 섰다. 순두부 한 봉에 3~4인분이라는데 가격은 단돈 1,500원이었다. 1,500원에 3~4인분이라니... 믿을 수 없기도 하고 먹성이 좋은 나는 3천원을 내밀며 그냥 두 봉을 달라고 했다. 집에 와서 풀어보니 정말 양이 많아서 한참을 먹



다가 결국 가족들에게 나눠주었다. 양도 양이지만 그 맛이 정말 좋아서, 따끈하고 부드러운 순두부를 먹는데 이런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구나 싶었다.

지금은 농수산물이 주를 이루지만 나중에는 농수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가 더 늘어나는 것은 어떨까? 싶었다. 특색있는 농민들의 상점이나 상품이 늘어나고 젊은 창업자들도 점점 늘어나면서 이곳이 강릉의 새로운 관광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이 머릿속에 펼쳐졌다. 물론 지금도 이미 충분히 매력을 가진 시장이라고 생각한다. 사 온 순두부를 맛있게 먹으며 다음에 강릉에 놀러 오는 친구들에게 꼭 이 장소를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아직 관광지로서는 사람들에게 많이 홍보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새벽시장이라고는 하지만 아침까지도 운영이 되니 여행자들에게도 그렇게 무리한 시간도 아닐 것이다. 아무튼 이 강변의 장터가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느낀다.

엄마에게 우연히 전해 듣기 전까지는 그 존재조차 몰랐다가 이번 취재차 방문한 새벽시장은 강릉의 숨은 보물처럼 느껴졌다. 예전 유럽 여행을 다닐 때 공원이나 공터, 야외에서 여러 상인이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내다 파는 정겨운 장터를 가본 적이 있다. 그러다 보면 현지인과 눈을 마주치며 제품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고 즐거운 대화도 나누게 되었다. 그 재미는 그야말로 오감이 즐거워지는 행복한 경험이었다. 대형마트보다 더 지역의 향기, 사람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야외 시장인 것이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다시 편의만을 따지며 대형마트를 자주 이용했었다. 편리한 만큼 여러 욕심도 내려놓아야 하지만 딱히 어떤 변변한 차선택도 없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새벽시장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20년이 넘은 전통이 지금 우리의 세대를 넘어 미래의 자산으로 계속 성장해나가기를 희망한다. ▲

왜, 포남동에서 놀이터 사진을 찍었을까?

글·사진 심규동

나는 영동초등학교를 나왔다. 걸어서 5분도 안 걸리는 코앞에 학교가 있었다. 그래서인지 행동반경이 매우 좁았다. 나에게 15분이 넘어가는 거리는 매우 먼 곳이었다. 그렇게 먼 곳을 가게 되면 친구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었고, 부모님에게는 왠지 혼날 것 같아서 비밀이 되었다.

그 시절 인근 다른 학교로 원정 축구 시합을 떠나는 것은 평소 행동반경을 벗어나는 일탈이었다. 다른 학교는 항상 우리 학교보다 컸다. 넓은 운동장에 놀랐고, 새로운 놀이기구에 신났다. 하지만 영동초등학교에서 왔다고 하면 어디 있는 학교냐며 모르는 친구들이 많았다. 그럴 만도 한 게 우리 학교는 한 학년에 세 반 정도밖에 없는 작은 학교였다. 당시에는 한 학년에 많게는 열 개의 반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이런 이야기는 축구가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의례적으로 하는 기 싸움의 주제였다. 이 상황을 처음 맞닥뜨렸을 땐, 나의 세계가 무너져 저학년이 된 것 같았다. '우리 학교는 동산이 있어!'라는 대응을 발견하고부터는 좀 나아졌지만, 더 큰 세계에 대한 갈망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

그 당시 나를 꽤 놀라게 한 일이 있었는데, 나보다 3살이나 어린 고종사촌인 정근이가 사라진 것이다. 몇 시간 뒤 정근이는 혼자 멀고 먼 길을 걸어 외갓집인 우리 집으로 왔다. 세 살이나 많은 형인 나로서도 포남동에서 고통까지 혼자 걸어가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고모 차를 타고 외갓집에 올 때 보던, 창밖 풍경을 따라 걸어왔다고 했다. 그 얘기를 듣고 놀란 나는 마치 사촌 동생의 동생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고모는 우리 집에 자주 왔고, 유독 나를 예뻐했다. 나도 그런 고모가 좋았다. 고모는 내가 궁금해하는 미지의 세상을 가장 잘 알 것 같았다. 가끔 나만 고모네 집에 가서 자고 오는 날이 있었는데, 그럴 때면 TV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서울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고모는 아파트에 살았다. 우리 집 주소는 까막어도, 고모 집이 청송아파트라는 것은 기억했다. 내가 처음 엘리베이터를 탄 곳도 거기다. 혼자서 엘리베이터 타는 법을 몰라 정근이의 도움을 받을 때면 내가 다시 동생처럼 변해 있던 기억이 있다. 그때 나는, 아파트는 성공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앞으로 우리가 모두 아파트에 살게 될 줄 알았다.



정근이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한솔초등학교였다. 그때 막 새로 생긴 초등학교였다. 나는 한 학년에 몇 개 반이나 고 물어보았고, 역시나 많은 반이 있어서 놀랐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그런데 운동장이 매우 클 것이라는 생각과는 달리 작았다. 놀이기구도 특별하지 않아서 의외였다. 우리 학교에 있는 솔울 동산을 생각하며 내 어깨가 올라가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정근이는 개키치 않았고, 아파트 안에 신식 놀이터를 소개해줬다. 아름다운 놀이터가 집 앞에 있는 것은 내가 궁금해하던 미지의 세계, 그 자체였다.

나는 중학생이 되었고, 그 포남동에 있는 동명중학교에 갔다. 버스를 타고 25분이나 걸렸다. 미지에 세계에 대한 갈망이 여전하여 그리 먼 중학교에 갔으리라 본다. 중학생이 되자, 초등학교 때 개구리 잡으러 다니던 산은 교동택지가 되었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고모는 그곳으로 이사했다. 20년이 지나 유천택지가 새로 생겼고, 또다시 많은 아파트가 들어섰다. 어릴 적 나에게는 포남동이 강릉의 서울이었다. 지금은 아니지만.

포남동도 택지처럼 잘 설계된 주택지구였다. 그래서 몇 가구당 놀이터 하나씩 있어야 하는 기준이 있었다. 현재는 당연하고 익숙한 풍경이 되었지만... 그 시절 고모 집에 가서 만났던 놀이터는 새것이었고, 신식이었다. 지금은 헌것이고, 구식이 된 그 놀이터를 사진에 담았다. 나는 이 사진을 보고 새것을 떠올린다. 아름답고 찬란했던 과거를. ▲



아빠와 포남동 그 사이 어딘가

글 김지현

최근에서야 나도 직접 포남동으로 놀러 가고 있지만 사실 그 이전까지는 이곳은 내게 아빠의 구역이었다. 아빠가 차를 끌고 데려가야만 갈 수 있는 곳, 그 끝엔 다년간의 회식 등으로 점철된 아빠의 사회생활 정수, 맛집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가족끼리 외식을 하러 차를 타면 언제나 메뉴는 운전대를 잡은 아빠의 마음대로였다. 나머지 가족들이 아무리 불만을 표시해도 소용이 없었다. 어처구니없게도 아빠는 맛만 보고도 재료를 척척 알아맞히는 절대 미각의 소유자였고 결론은 맛있었으니까. 대부분 그 도착지는 포남동 골목 어딘가, 왜인지 모르겠지만 아빠가 좋아하는 맛집은 포남동 곳곳에 숨어 있었다. 양쪽으로 세워진 차들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 골목 골목을 헤쳐나가다 보면 나는 도저히 혼자 도착하지 못할 가게 간판이 마법처럼 쾅! 하며 보이곤 했다.

오늘도 원하는 메뉴를 먹는 데 실패해 뿌루퉁한 얼굴로 가게에 들어서면 맛있는 냄새에 이내 곧 마음이 풀려버렸다. 음식을 한입 맛보면 게임은 끝, 맛있게 식사하는 일만이 남았다. 돼지갈비 골목은 우리 가족이 저녁 외식을 할 때 곧잘 가는 가게 중 하나였다. 돼지갈비 가게 여러 채가 한 줄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가운데 아빠는 그중에서도 항상 왼쪽 맨 끝 집을 찾곤 했다. 고기를 구울 연탄이 열기를 내뿜고 그 위에 고기가 없어지면 군침이 꼴깍 넘어가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했다. 아빠가 맛있게 구워준 고기를 허겁지겁 먹은 뒤 구수한 된장찌개에 밥을 비벼 먹으면 이게 바로 천상의 맛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든든하다 못해 뻥뻥해진 배를 통통 두드리며 집에 돌아가는 길에 괜스레 기분이 좋아진 나는 헤헤거리며 재롱 아닌 재롱을 부리곤 했다.

물론 가족들 모두가 좋아하는 집만 있었던 건 아니었다. 아빠의 최애 맛집 닭내장탕집이 바로 그런 경우였다. 이젠 그냥 닭고기도 넘쳐나는데 왜! 굳이! 고기 대신 내장으로 탕을 끓여서 나를 고뇌하게 하는가 마음속으로 아무리 생각해봤자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고 이내 상 위에는 팔팔 끓는 닭내장탕이 떡하니 올라와 있었다. 엄마와 동생은 일찌감치 먹는 걸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 있고 아빠는 연신 맛있다고 탕을 해치우는 가운데 평소라면 나도 엄마와 동생과 같이 뒤로 물러나 있었겠지만, 그날따라 배가 고플 나머지 두 눈을 딱 감고 닭내장탕 한 입을 삼켰다. 근데 웬일인걸, 생각보다 맛이 나쁘지 않았다. 순식간에 밥 한 그릇을 다 채우고 그 집은 우리의 별미집으로 남았다.

그렇게 포남동을 볼 때면 그 시절 맛있는 걸 함께 먹던 젊은 아빠의 모습이 떠오른다. 아빠와 함께 나이를 먹어 이제는 흰머리 성성한 아빠의 머리카락같이 세월의 흔적이 다분한 가게들, 군데군데 굵게 패인 아빠의 주름처럼 이제는 사라져 볼 수 없는 가게들에서 젊고 힘이 넘치던 아빠의 모습이 스쳐 지나간다. 오랜만에 가게에 앉아 아빠와 술 한 잔을 기울이고 싶다. 그렇게 우리의 추억은 오늘날 그와 나의 일상으로 다시 이어져 간다. 그 가운데 나는 아무쪼록 이 일상이 별 탈 없이 오래 이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



'내일을 위한 모두의 선택' 내일상회

인터뷰 박준상·서지원

포남동을 걸었다.
천천히 걸었다.

포남동 또한 내가 어릴 적 잠시 머물렀던 집과의 추억이 남아있는 동네였고, 학창 시절 나의 생활권이었던 동네이다. 초, 중학교 때는 시립도서관을 찾기 위해 포남동에 방문했고, 고등학교 때는 학원을 가기 위해 포남동에 갔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어서는 중고등학교 시절 즐겨 가던 나만의 맛집들을 찾아가기 위해 포남동을 찾았다. 그리고 최근 만난 포남동에서 사뭇 다른 곳인 내일상회를 만났다.



내일상회. 강원 강릉시 용지각길8번길 3, 1층
인스타그램 @tomorrow.market



왼쪽부터 산미, 솜씨, 프란, 오늘

Q1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산미

안녕하세요. 저는 지현탁이라고 합니다. 본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퇴근 후 내일상회 친구들과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별명은 산미라고 합니다. 의미는 호저(豪猪)라고 하죠 뽕 많이 난 고슴도치 같은 게 있는데 그게 한국말로 산미치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성격이 왔다 갔다 하고 활발한 편이라서 붙은 별명입니다. 산미치광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에는 이미지관리 차원에서 줄임말인 '산미'라는 별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커피의 산미로 많이 오해하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솜씨

저는 솜씨라는 별명을 사용하고 있는 이혜림이라고 합니다. 제 별명의 의미는 솜씨가 순우리말인데 손 솜씨 제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고 싶다는 의미로 지었고, 그 후부터 그런 가치를 지향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숲 관련된 단체에서 낮에는 열심히 나무를 심거나 숲을 지키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내일상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낮에 나무를 심고 저녁에 너무 힘들어서 일회용품에 담긴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삶을 살았던 저의 20대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의 모습을 바꾸고 싶어서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이런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프란

안녕하세요. 저는 최경환이고 별명은 프란입니다. 제 세레명의 앞 글자를 따서 프란이라는 별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릉에 온 지 3년밖에 안되었는데 좋은 친구들 만나서 이런 의미 있는 활동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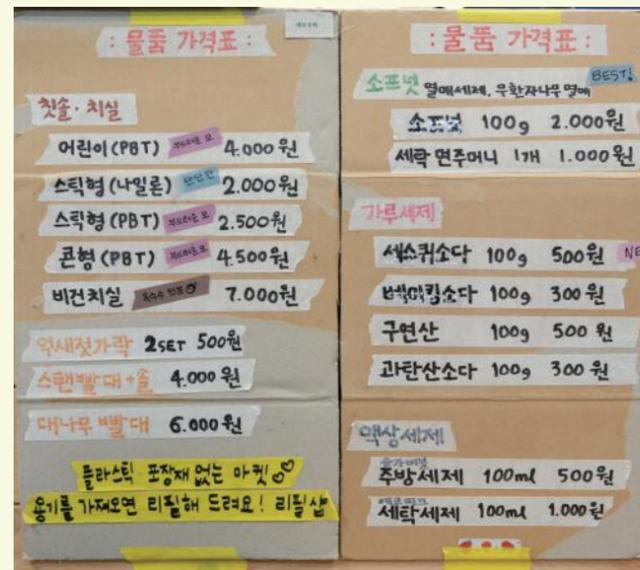
저는 이혜리, 별명은 오늘입니다.

숨씨

안 바꾸실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요. 제가 정말 2년 전부터 바꾼다고 말하고 있는데 못 바꾸고 있네?ㅋㅋ
콩씨로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숨씨, 콩씨하려고:) 뭐 아무튼
저는 기후위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강릉에서 생태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나 거점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책모임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아 그럼 우리가 시작해~'라고 해서 이 공간을 함
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다들 바쁘게 살고계신 것 같은데
힘들진 않으신가요?

오늘

힘듭니다.

숨씨

힘들어요..울어야할 것 같은데(T.T)

지원

이렇게 힘들게 지켜나가고 있는 내일상회!

지원

내일상회 슬로건도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숨씨

내일상회 슬로건을 소개해드리자면 '내일을 위한 모두의 선택'입니다. 사실 지금 많은 분이 경고하는 마지막
노선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다른 선택을 하면 내일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쓰레기문제에 있어서도 다른 선택지를 고를 수 있게 된다면 저희가 쉽게 값싸게 할 수 있
는 선택 말고도 다른 삶을 선택해서 사는 분들도 있고 다른 방식의 고민이 담긴 물건들도 만날 수 있는데 지역
에서는 그조차도 어려웠기 때문에 이러한 대안적인 선택권도 이야기하고 싶어서 선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
고, 모두가 내일을 위한 다른 선택을 한다면 우리의 내일은 달라질 것이라는 무력감을 넘어선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이런 슬로건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제로웨이스트 샵을 처음부터 할 생각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먼저 사용하고 싶었던 물건들 소개하다보니까 사고싶어하시는 분들도 있다보니 카드기도 없이 공동
구매의 형태로 세제소분샵 등의 형태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 좋다면데 내일상회에서 판매 안 하시나
요? 하면 들여놓고 함께 나누기도 하면서 제품을 소개하는 곳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확장하게 되었습
니다.

사실 저희는 이 공간을 통해서 실천하는 이야기나 사람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곳으로 만들려고 내일상회라
는 상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분께서 덧붙여 주세요.><



Q2. 내일상회는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숨씨

저희는 제로웨이스트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 방법에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그중 저
희가 이 마을에서 우선 시작해 보기로 한 건 '플라스틱 일회용품 등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보자'였어요. 약간
그런 걸 선택한 삶의 방식이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혹은 청년 노동자를 사용하는 방식이 비슷하기도 하고 그
래서 그걸 이야기해보자 해서 제로웨이스트를 지향하는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거 말고
도 하고 싶은 건 다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물건을 파는 상회이기도 하고 또 사람이 모이는 상회이기도 하구요. 그런 공간입니다.

지원

내일상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도 소개해주세요!



프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워크숍들도 진행하고 있는데 내일의 친구들...?

숨씨

아니 그건 사람 소개하는 거고, 적당한 학교~

프란

ㅎ

숨씨

적당한 학교는 오늘님이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란

네. 오늘님이 설명해주시겠습니다.

내일상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늘

네! 저희의 모든 활동은 모두 사심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적당한 학교도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시작하게 됐어요. 우리가 배워와서 혹은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모셔와서 배워보자 그리고 적당한 학교라는 것은 적정기 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별히 대단한 기술을 가지거나 대단한 재료를 가지지 않아도 내가 필요한 것들은 만들어서 사용해 보는 게 어떨까 고민을 시작했고 적당히 만들어도 괜찮은 것들을 적당히 만들어서 사용해 보자.

어떨 때는 실패도 하겠지만 같이 실패하고 같이 경험을 쌓아서 그게 서로의 지혜가 되고 그게 우리의 서로의 생활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적당한 학교라는 것을 올해 몇 번 진행을 했어요. 먼저 버섯 키우는 거 했었구요. 버섯 보통 마트에 사러 가면 비닐, 플라스틱 포장되어있어요. 그런 당연함에서 벗어나 보고자 버섯 키우기 키트를 공급해주는 영농조합법인을 찾아서 버섯 키우는걸 함께 공부하고 사용한 패키지는 회수해 다시 영농조합법인으로 보내는 작업까지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것을 지양하기 때문에 워크숍을 하고 있고 샴푸바 만들기 보통 액상으로 된 생활용품은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잖아요. 그런 포장이 없는 샴푸바만들기 진행했었고, 아무도 해치지 않는 치약만들기 이런 거 했었고, 또 우리 뭐 했나..? 그리고 소프넷이라는 천연세제 열매가 있거든요, 그걸로 손소독제 만들기를 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는 적당한 학교라는 이름으로 한건 아니지만 우드카빙으로 손가락 만드는 프로그램 반려 손가락, 반려 빗자루를 만들어보는 프로그램. 하얀튼 만들어서 바꿔볼 수 있는 것들은 바꿔보려고 조금씩 시도해 보고 있는 중 입니다.

Q3 . 어떠한 계기로 내일상회를 운영하게 되셨나요?

숨씨

아 저희는 제로웨이스트 운동을 해보자고 모인 건 아니었구요. 지역에서 청년 활동을 하다가 다 만났어요. 근데 내일상회 왜 하게 되냐고 물으시면 이 이야기를 꼭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구성원들 외에도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도 같이하는 그런 청년나루라는 청년네트워크 활동을 했었는데 그중 대학생 친구 한 명이 항상 만날 때마다 거의 결식, 밥을 못 먹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만날 만나면 물어봤거든요. 너 뭐 먹었어? 물으면 라면 하나. 알바비 이틀 뒤에 들어오니까 남은 돈을 쪼개서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2018년 19년, 지금 21세기에도 근데 또 그 친구는 알바비가 들어오면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술을 먹었어요. 그 친구가. 다른 기성세대분들처럼 이해를 못 했어요. 쌀 사야지, 밥 먹어야지 생각했는데 그 친구는 밥을 먹는 것보다 관계의 단절이 더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밥과 뭐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도 저희 세대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청년들의 식생활, 밥 먹는 걸 고민해보고 싶어 지원사업을 준비하다가 오늘님을 만나게 되었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그래서 설문조사나 식생활 교육 등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청년들의 식생활 문제 해결하는 '밥모임'에서 그치지 않고 더 많이 공부해서 그다음 해에는 동네에서 정말 작은 텃밭을 함께 가꾸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2년 동안은 계속 실패하면서 지속가능한 농법 등을 배우며 텃밭 활동을 했어요. 생태 텃밭이 기후 위기의 대안이라고 생각했고 이러한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고민하던 차에 우리가 더 이상 청년으로 호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자. 그래서 청소년 청년들과 환경 생태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앞으로 지역에서 청년정책 만들고 이런 일도 해야 하는 역할이지만 한편으로는 청소년 청년들을 더 만나고 환경과 관련된 이야기도 더 많이 나누고 싶어서 내

일상회 환경 이야기를 더 수렴해서 저희가 해볼 수 있는 역할을 찾는 데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일상회를 시작하면서 '저희는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어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싶어요.' 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 공간 이름도 짓고 다양한 지원사업에도 참여를 하게 됐어요. 또 저희 공간에 방문해주신 다양한 분들께서 물건도 구매하고 워크숍도 참여하시면서 그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연결해주셔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4. 내일상회가 포남동에 자리 잡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산미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던 청년공동체 나루라는 공간이 서부시장에 있었어요. 도시재생으로 인하여 저희가 나가야하는 상황이었고 저희는 바로 '옴, 나가겠습니다.' 하고 다른 공간을 알아봐야 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집도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었는데 시기가 겹친 상황에서 이 뒤에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계신 동네 형, 누나들이 계신데 어떻게 또 연결이 되서 옆집이 비었다는 거예요. '어 좋아요.' 하고 옆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내일상회를 고민하면서 집주변 공간을 알아보다가 앞집(단정) 사장님께서 여기가 광고회사였는데 곧 여기가 빈다고, 물어보라고 말씀해주셔서 조건이 맞아서 이 공간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숨씨

원래 이 동네는 강릉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하숙하던 동네였어요. 하숙집으로 쓰이던 단독주택들이었는데 학생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분들이 살게 된 동네였어요. 이런 동네에 하나둘씩 이사 오게 되면서 포남동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동네에 잘 안 보이던 청년들이 돌아다니니까 어르신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저희 지금 이 공간에 있는 물건들 대부분이 어디서 주셨거나 주워 온 물건들이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이 공간을 만들면서 낮에는 돈 버느라 밤에만 문 열고 그러니까 동네 분들께서 너네 뭐 하는 애들이냐 하시면서 걱정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 공간에 와있다 보니까 무언가 하시는 분들도 만나게 되고 하면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산미

'왜 포남동이었던 이유가 있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집이랑 가까워서였습니다.ㅋㅋㅋ
먼저 포남동에 이사를 왔는데 주변 분들께서 도와주시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이죠.

지원

그럼 혹시 처음 이 동네를 마주했을 때 어떤 분위기를 느끼셨나요?

숨씨

그런 건 있어요. 집도 가깝지만 많은 버스 노선으로 접근성이 좋았고, 큰 도로에서 한 골목 뒤에 있다 보니 동네도 조용해서 좋았어요. 그리고 아직 이 동네에는 차는 많긴 하지만 집집마다 감나무며 마을 분들이 쓰레기장 같은 경우에는 같이 관리도 하세요. 그렇게 마을 분들이 편하게 걸어 다니기도 하시고, 감 같이 따서 나눠 드시고 하는 모습이 이런 도심 안에서 어르신들께서 삼삼오오 모여 살아가는 분위기가 있는 동네예요. 사실 저희가 연말에 동네 주민분들께 상장 같은 거 만들어드리려고 하거든요. 저기 쓰레기 정리 잘하는 최사장님, 그리고 동네 반장님 그 분들께서는 일상이었는데 저희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아직 그렇게 막 뭔가를 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정리하고 자치가 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마을이라고 하기는 아직은 그렇지만 저희는 이 동네를 용지마을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뭔가 그런 분들과 같이 살고 싶어요.

오늘

어쨌든 이분들이 살아오신 질서들이 있어요. 굳이 누가 들어와서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정과 의심의 한 곳 차이에서 나무 칫솔 소개해드리고 하니까 '아이구, 좋은 일한다' 하면서 반겨주세요.

준상

그러니까 동네에 어떤 계기로 들어왔어가 아니라, 동네에 들어와 보니 이미 준비된 동네였던 것이었던 것이었네요. 준비라는 게 몰라서 그랬지 어느 정도 알았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이 동네의 매력인 것 같아요.



지원

다음은 사심담은 '내일상회' 광고 시간입니다.

Q5. 내일상회의 추천상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판매를 많이 하는 게 목적은 아니어서요.

지원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면보다는 제로웨이스트에 입문하는 분을 위한 소개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1번 나무 칫솔!

이게 플라스틱이 만드는데 5분 섞는데 500년이라고 하잖아요. 접근성이 가장 좋은 게 나무 칫솔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쉬웠어요.

산미

소프넛! 이건 무환자나무에서 열리는 열매껍질입니다. 안에는 염주 만들 때 사용하는 거고 이게 물에 닿으면 사포닌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그게 세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래 사용하게 되면 부서지게 되는데 나무껍



질이니까 퇴비로 사용되기도 하고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부터 폐기까지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추천합니다. 진짜 잘 닦여요. 저는 주방세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솜씨

와입쓰 추천합니다. 소창이라는 면인데 물티슈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함께하는 그 날 협동조합의 '소락'이라는 브랜드제품입니다.

프란

저는 삼베로 된 여행용 파우치도 잘 사용하고 있고, 헴프 빗자루 좋아요. 굉장히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굉장히 유리해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플라스틱 빗자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청소하는 거 좋아하는데 플라스틱 빗자루랑 먼지가 쓸리는 밀도 차이가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고 저 면 주머니 추천이요. 소창으로 만들어진 면 주머니구요. 마트 가면 이미 포장된 게 많기는 하지만 포장 안 돼 있는 식자재를 담기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여기에 대파가 들어갑니다. 얇고 손잡이가 있어서 장 보러 갈 때 좋습니다.

Q6 . 내일상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포남동이 어떤 모습이길 바라시나요?

오늘

저는 사실 지역에 대한 고민이 많은 사람은 아니라 내일상회의 모습만 떠올려보면, 내일상회 올해 어쨌든 시작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적당한 학교도 베타테스트의 형태로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이 공간을 거점으로 정말 생활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하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많은 사람에게도 알려지게 된다면 좋을 것 같구요. 또 개인적으로 텃밭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희가 퍼머컬처 교육을 받고 있어요. 오늘도 그래서 제비리에 밭을 구해서 하루 종일 삽질하고 왔는데 그 공간에서 저희가 키우게 되는 작물을 활용해서 생활재를 만드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프란

저는

오늘

떠나요. ㅋㅋㅋ

숨씨

일을 같이 벌려놓고 다 저질러놓고... ㅠㅠ

산미

또 다른 자원, 지지를 얻기 위해 한 3년 출장 가십니다.

프란

갑니다. 아직 정해진 건 아닌데 서울로 가게 될 계획입니다. 사담이구요.

제가 기대하는 모습들은 공간지기 할 때 주민분들께서 놀러 오셨어요. 점차 축적되어 가는 거겠지만 조금 더 편안하게 오시고, 저희의 이야기도 편하게 알릴 수 있고 안전한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저에겐 이곳에서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는데 인사를 드릴 때마다 제가 여기에 있는 게 안전해진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내가 안전해지고 있구나가 알려지고 있다는 게 좋았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숨씨

저는 전에 이야기하던 거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이 지역에서 해 볼 수 있는 일들을 더 찾았으면 좋겠고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올해 일 년 동안 운영을 해 보면서 다른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분들이 평소 마음의 짐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쓰레기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려고 고민하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짐을 나눠서 변화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청소년들과 함께해보면 환경과 지역사회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산미

저는 지역에 관심사가 많은 강릉에 온 지 10년 정도 된 타지인이거든요. 타지인이다 보니까 어떻게 지속하고 정착해야 하는 것인지 조금 더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고 이런 고민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면서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활동도 이어갈 수 있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사회적협동조합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개인적인 것이기 보다는 공공적인 성격을 띄는 법인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보여주고 싶어요. 개인의 삶 속에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내년에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과 통계나 정리된 것들을 또 다른 제안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는 정책도 제안해보고 싶어요.

포남동의 모습을 상상해보자면 이런 뭔가 저희 주변에 있는 가게들이 쓰레기 환경문제를 생각해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모습 이 동네 만이라도 자체적으로 순환이 가능하도록 주변부터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다 같이 해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아무튼 비건'이라는 책을 쓰신 작가님 인터뷰 내용에서 지금 세상에는 어차피족과 최소한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지구가 어차피 이렇게 됐는데 어차피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최소한 이거라도 좀 하자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 최소한족의 인원이 더 늘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일상회에 그런 최소한족들이 많이 몰려오면 좋겠어요. 도미노라고 하죠, 기후 위기나 재난상황이 닥쳤을 때 도미노가 쓰러지듯 연결돼서 서로를 지지해주는 모습을 내일상회를 거점으로 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산미

저희 '생태전환마을내일'이라는 이름으로 법인을 준비하고 있어요. 내일상회는 지금의 공간으로 남아 앞으로 법인이 운영하는 공간이자 커뮤니티의 거점으로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숨씨

도시 안에서는 포남동에 내일상회의 거점공간이 있지만, 구정이나 강릉의 곳곳에 생태 텃밭, 생태공간을 더 많이 만들어가고 싶어요. 생태적 전환을 꿈꾸고 실천하고 싶은 사람들의 공유지를 늘려나가는 것을 꿈꿔요.

나 같은 경우 도자기 사용하기, 세척이 가능한 빨대와 빨대술 사용하기, 마트에서 비닐대신 네트백과 장바구니 사용하기, 샴푸바 사용하기를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화장솜 줄이기를 실패했고, 내일상회 치약연구원으로 활동하였으나 친환경 치약과 친해지지 못했다. 그럼에도 적어도 최소한족으로서 내게 이런 관심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내일상회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본다. 프로귀찮니스트인 내가 살고있는 강릉에서 이런 멋진 공간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었고, 혼자서 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생활재를 함께 만들어볼 수 있는 기회, 강릉의 경우 생각해보면만한 대표적 쓰레기 문제인 해양 쓰레기 문제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나 말고도 다른 이들에게도 앞으로 포남동 내일상회의 활약이 기대되는 바이다.

인터뷰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지만, 특히나 내 관점에서 내일상회의 플로깅 활동은 인상적이었다. 플로깅은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행동으로 건강과 환경을 함께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평상시 동네 산책을 하거나 스콘멤버들과 동네를 관찰하는 시간을 가질 때면 눈에 보이는 쓰레기들이 있었다. 오늘은 그런 쓰레기들을 그림으로 기록해 보려한다.

포남에서만난/

일송청송아파트를 중심으로 주변을 천천히 걸었다.

학생들이 학교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은 흔적, 간식을 먹고 남은 흔적을 포남동 곳곳에서 마주칠 수 있었고 학교나 학원에서 나눠주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쇄물이 바람에 날려 와 누군가는 잃어버렸을 것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른 동네보다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아파트 주변이라 그런지 사람들의 흔적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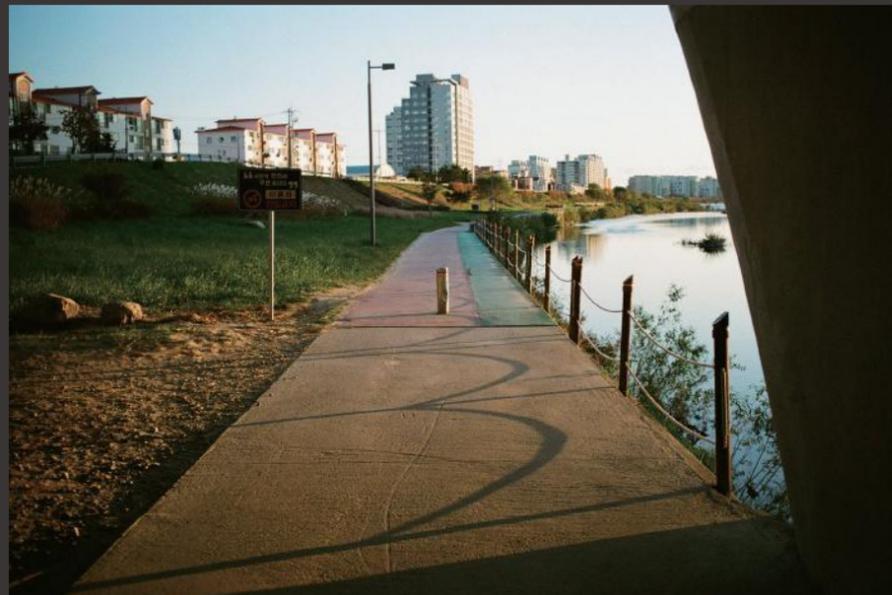


포남동 자전거 여행

글·사진 심규동



1. 자전거를 타고 가장 먼저 들린 곳은 새벽시장이다. 김장철이지만 배추가 적다. 올해 유난히 긴 장마로 먼저 심은 배추가 물에 잠겼다고 한다. 배추 따라 김장도 늦어졌다.



2. 울퉁불퉁한 길을 달리다 자전거 도로로 들어서면 여유가 생긴다. 이럴 때 넘어지기 쉽다.



3. 역새보다 갈대가 예뻐 보일 시기가 있다.



4. 나는 자주 이 나무를 찍는다. 둑 끝에 서야 이렇게 전체를 담을 수 있다.



5. 작년 태풍에 쓰러진 나무는 어느덧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7. 쪽 뺨은 이 길을 따라 달리면 강문 해변이 나온다. 또 매년 오월이면 빨간 장미로 가득 채워진다.



6. 한솔초등학교 옆에는 꽤 큰 농경지가 있다. 보고 있으면 바다 못지않은 시원함이 있다. 이곳은 사시사철 달라지는 농사 풍경으로 나를 매료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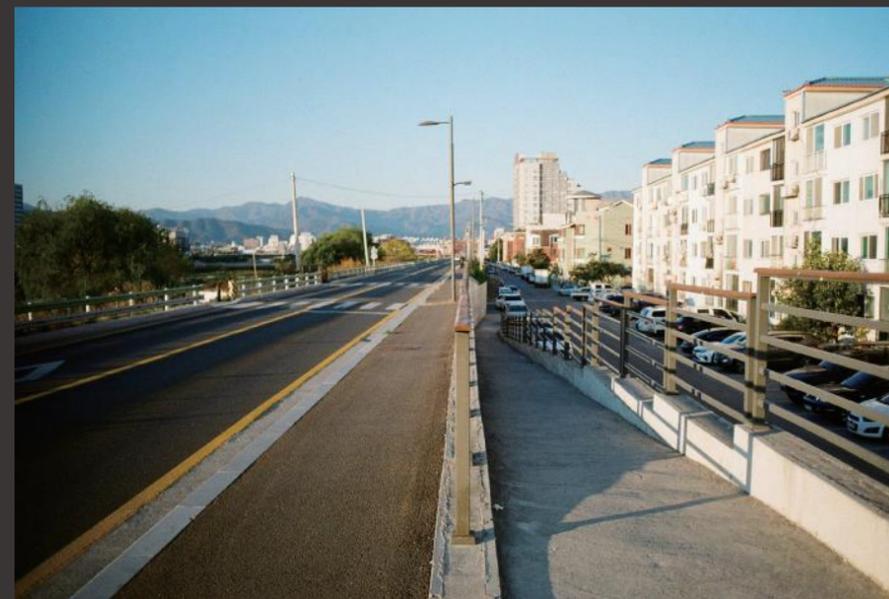
8. 바다 앞에 해송은 높게 자라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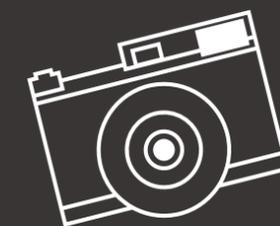
9. 자전거를 세워두지 않고, 끌고 모래사장으로 들어간다. 나만큼은 아니지만, 이 자전거도 바다를 적잖이 봤다.



10. 강문 해변은 파도를 옆에서 보기에 좋다.



11. 집을 나서고 바다를 볼 때도 자전거를 타지만, 포남동의 쪽 뺀 길을 달릴 때면 자전거와 나에 더 집중하게 된다.





포남동이 쌓은 30년이 단단한 땅으로 다져지기를 기대합니다.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강릉시 임영로155번길 6 (서부시장) 2층 57호

<http://www.gursc.org> T.033-642-3995 F.033-643-3996

Copyright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



9 791197 020636
ISBN 979-11-970206-3-6